

다음이 무엇이나 마음을 두어 잘하고 잘못하는일 살피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잘못 반성하여서 바른지 잘못인지 힘써 뒤오라. (法句經·화양품 72절)

주최: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편집: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발행: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267-8577)
FAX: (02)279-1270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41-4132)
인쇄: 김영로

제 1044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9
1955.10.13 제 3호우림법(가)특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4월4일 (수요일) 【1】

총학 정·부 회장 권오철·이진한 선거이래 최다 표차 당선... 10일경 출범식

여총 정·부 학생회장에 김윤향·권미경조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정오철(전)·이진한(전)이 각각 77표와 1천3백77표 차이로 총선거이래 최다표차로 당선됐다. (관련기사 7면)

지난 30일 오전 2시30분부터 다학관(2층 교수식당)에서 양후보와 당선위원,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됐다. 제1지역구(경상대·사회대·법대·농대·예대)개표에서부터 기호2번이 3백8표차로 앞서기 시작, 제3지역구(공대·사범대)개표결과 기호2번이 9백92표차로 득표하면서 당락이 기울었다.

총개표결과, 유권자 총9천4백74명중 6천9백68명이 투표, 73.55%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기호1번은 2천6백77표(38.42%)를 기호2번은 4천54표(58.18%)를 얻었고, 지역구별로 투표율은 1지역구가 76.35%의 투표로 가장 높았고 공대·사대가 기호2번에 73.78%의

지지율을 보였다.

당선 확정 직후인 지난 30일 오전 7시경 기호 2번 당선자는 학생 60여명과 동우탑에 참배하고 일정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 31일 당선 확정공고를 내고, 지난 1일 해체,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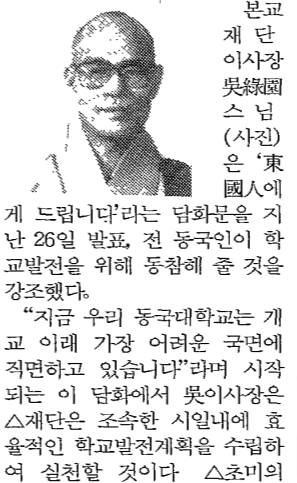
한편 제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변혁의 몸짓으로 새 삶을 선언하노니' 그대 동학의 여성전사여! 여성해방 노동해



○지난30일 오전2시30분부터 다학관(2층 교수식당)에서 당선위원회,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됐다.

뜻이사장 '東國발전' 호소

이사진 후보 적법 여부... 변호사에 일임



본교 재단 이사장 吳錫國 스님(사진)은 '東國人에 게 드림나'라는 담화문을 지난 26일 발표, 전 동국인이 학교발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며 시작되는 이 담화에서 뜻이사장은 스제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이다 △초기의

관사인 총장선임에 있어 합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중단에서도 이미 본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이사회 일정이 계속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국학원 이사 및 감사후보들의 간담회가 지난 21일 열려 동대사태 이후의 전직상황보고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관선이사 파견여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이날 간담회에서 정영수님은 "현 동대이사 전일 사퇴시 법적 절차상 문제와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 감사

서울·경주 등록률 80%

등록연기로 학생회 한계 노출

'90학년도 제1학기 등록률이 지난 30일 1차 마감에 서울·경주캠퍼스에서 총 9천7백명이 등록, 80%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번 등록은 등록금협상이 제대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자 지난달 22일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배부, 지난달 30일까지 마감은 하려 했으나 시일이 너무 촉박했

다는 이유로 오늘(4일)까지 추가 등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대, 농대, 사범대 등 몇몇 단과대에서는 단대, 혹은 과학생회 납부를 결의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본교 조종은행과 우체국등에 개설된 계좌로 납부하기도 했으나 학교측등록을 집계해 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이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단대별 학생회 납부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학생회납부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은 등록금간담이 너무 촉박했고 학학생회 납부시 후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보직 인사발령

명예교수 3명도

학교당국은 일부 보직인사와 명예교수등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보직인사
△경주캠퍼스 도서관장=金 彌珠(인문대 철학)(3월15일자)
△경주보안대학원 교학부장=李 金石(전지계산학)(3월23일자)
○명예교수
△金鍾憲(경제학) △白元俊(기초과정학) △南都欽(국사학)

신입생 특강 실시

여학생감실에서는 본교 李 德(가정교육)교수를 연사로 '대학생활에 있어서 남녀교제'란 제목의 특강을 오는 18일 오후4시 학림관(소강당)에서 실시한다.

본사주최 **90년 9월 최종 마감** 제8회 학술논문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삼는다고 학교 요람 첫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또 조계종단의 宗學學校라고도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동대는 불교전문학교로 출발했으며, 그런 연유로 불교대학이 명목상 수석대학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와같이 동국대는 천오백년 이상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삶과 불가분적 연관을 가져 온 불교의 명맥을 이어받고 발전시킬 사명을 띤 민족대학이다. 특히 불교대학은 종단과 더불어 민족종교의 하나인 불교를 통해 혼란스런 이 시대와 어두운 이 사회의 길잡이와 등불이 될 인제와 성직자를 길러낼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되는 것은 불교대학의 현실이다. 기독교의 경우엔 매년 6천명의 신학도들이 신학대를 졸업하여, 그 중 2천여명이 성직자로 활동한다. 그에 비해

종단과 불교대학의 相資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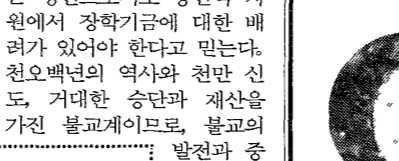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종단과 불교대학은 상호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종단은 불교대 졸업생들에게 종단의 권위로써 포교사 내지 봉사자를 수여하며,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포교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 뿐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불신숭배의 시대에 불질적 빛가 거의 없는 영

박桂山 여사 3천만원 기탁

계산고시학사 건립후 고시생위해 헌신



계산고시학사 설립자인 박桂山 여사(행정대학원 77주)가 고시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3천만원을 내놓았다.

李善容법대학장, 韓秉熙교수반지도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7시 계산고시학사(1층 식당)에서 열린 '90년도 고시장학생간담회'에 참석한 박동문은 "장학금 3천만원을 은행에 적립, 그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형편이 닿는대로 기금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는 박성열(법학 85주), 권오복(행정 88주) 등 문 등 2명에게 장학금으로 금일봉

경주 부속병원 66% 공정

6월 완공목표 차질 없어

본교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 공사가 오늘(4일) 현재 총공정 중 66%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6월 완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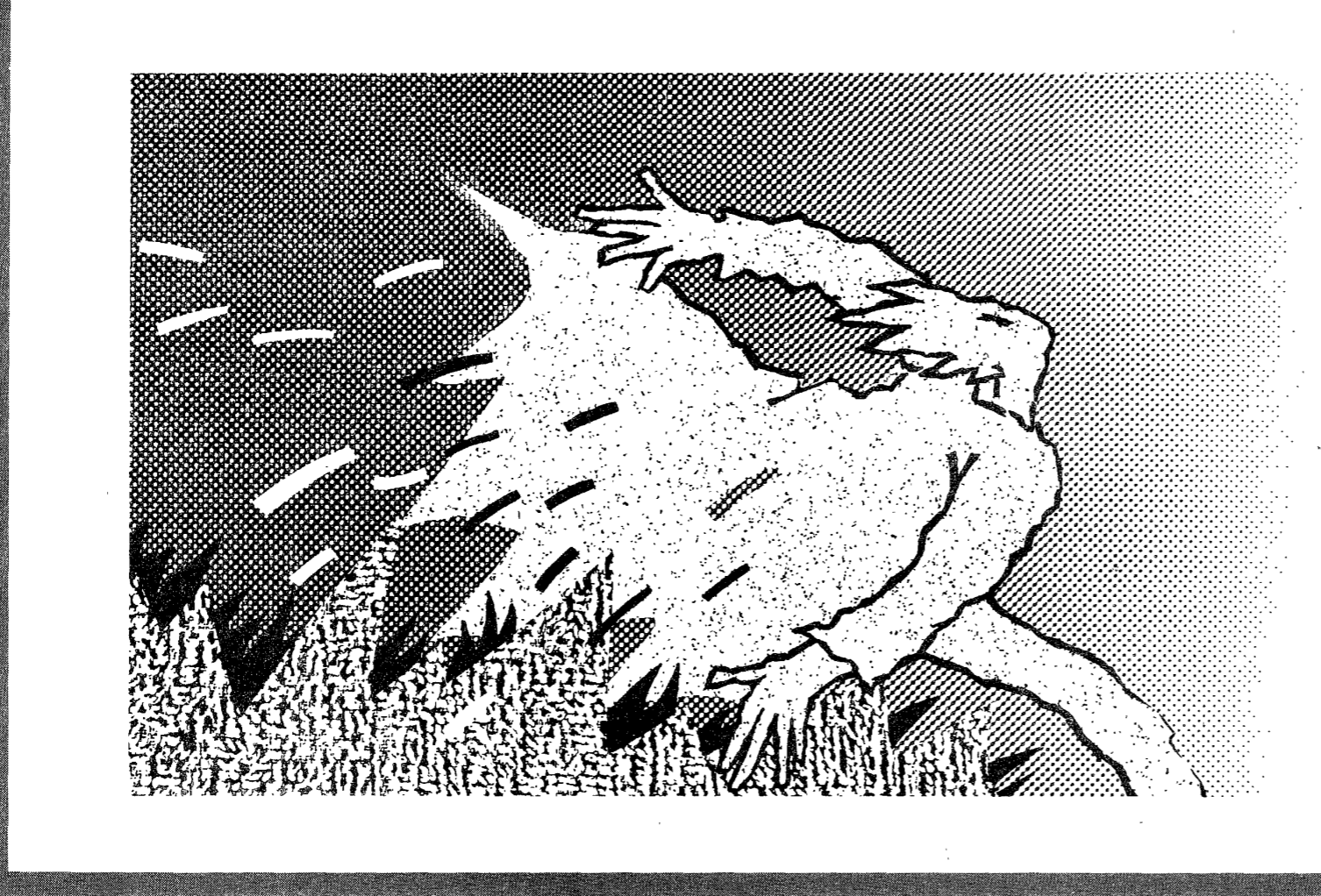
이와 관련, 의뢰된 건설과 한 관계자는 "공사진행이 아주 순조로와 6월 완공에 문제가 없다"며 "현 진척도는 공사비에 준한 것이며 공사 기술상으로 80%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속병원은 내부 설비 공사로 전기배선, 배관공사와

우리 90년 9월 최종 마감

본사주최 **90년 9월 최종 마감** 제8회 학술논문

동대신문 40주년 기념 / 동국정신선양 기획광고 4



누리의 어둠 밝히노니

이땅을 덮고있는 저 음습한 어둠들.
무지 독신 욕심 아집에 취해
지희끼리 몹쉬고 체념하고
나라를 잊긴恨은 겨레의 志士들을 차례로 삼기는
늘이 되어 있었다. 어느 새

일어서는 젊음들.
東岳은 깨어있었거늘
쉬은 꿈을 키워 그꿈 다시 나뉘었고
누구는 사랑을 위해, 누구는 正義를 좇아, 누구는 理想을 품고
길을 떠났다.

자신을 태워
歷史의 어둠을 몰아내는
젊은 仁者들 -인자한 하얀 코끼리떼.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東岳, 그 내일의 불.

군축, 평화운동과 교류 함께 할때

I. 조성된 국제·국내의 주객관적 정세를 바로보자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절대적명예의 과제를 바라봄에 있어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각급의 신데타트분위기를 조국통일에 '자주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풀어야 하고 그 방법만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다.

우리는 흔히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평화노선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평화노선)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침체된 생산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의 재통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김영삼 민중당 대표위원이 소련을 방문, 한·소 수교를 도모, 소련측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는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분단정착을 기하려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한미공군기지의 일부 폐쇄, 주한미군의 부분철수에 속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두개의 한국조각쟁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내에서 교양되고 있는 반미운동을 희석화시키려는 계층주의이다.

또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교차승인의 전단계로 주한미군 일부감축을 협상카드로 현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가의 평양방문·1월5일 미·북한 외교관접촉)

이것은, 주한미군일부감축이라는 미끼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취하면서 마치 미국과 남한당국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는 식의 여론을 불려일으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반북의식을 고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서려있다.

한편, 남한당국은 신데타트 분위기를 이용 북방정책(소련 및 동구권과의 수교)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차승인을 통해 분단고착화를 기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우기, 미국의 배후조정에 의해 현정권의 장기집권과 분단고착화를 위해 성립된 3당합당을 보아도 더욱 명백해진다.

한편, 북한은 90년도에 어느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대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석 김일성은 90년도 신년사에서 "분단장벽 제거, 남북사이의 자유왕래전면개방의 실현을



< 5 >

위한 협상회의 개최, 남북 당국자 회담 국제체육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과의 각종회담요구는 남한 당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방정책과 장구단일화론의 모순을 폭로, 입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전면 왕래운동... 민족단결 싹 틔워 체제 흡수적 통일방법 재화 불러와 평화 구조 정착 위한 군사회담 절실

II. 신데타트 시대의 조국 통일운동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

우리민족은 분단 후 46년의 세월 동안 서로다른 정치·경제·문화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남·북한 내에는 이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애국민족세력은 미국과 지체계급의 반북·반공이데올로기 선전에 속아 넘어가 있는 실정이고, 남북한 간의 적대감이 많이 유포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구제적 현실에 근거해 보았을때,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려한다면 한반도가 전례 없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 애국민족세력에게 는 남·북간에 사상·이념을 초월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이요 구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이루려면 먼저 남·북한 민족간의 대단결 의식이 싹터야 한다고 생각된다. 분단된 민족의 재통일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남·북동포간에 서로

◆글 쓰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2.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4. 기간의 통일논의 정리
5. 신데타트 시대의 조국통일론

신뢰하고 단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국의 통일이 있어 서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은 남·북한간에 평화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은 자주적 남·북교류운동을 통해 그 동안에 쌓여왔던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허물어 버리고 민족대단결 의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안적 교류가 아닌 남북한 각계 각층이 차별없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부분적 개방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개방을 하도록 애국민족세력들은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은 학생의 처지에 맞게, 노동자는 노동자의 처지에 맞게, 농민은 농민의 처지에 맞게 자주적 교류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인 평화구조의 정착을 통해 가능하다 했을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핵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분위기에서 통일이 가능한가? 남한에는 현재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적 자료는 없지만, 미국방장관 이 미 의회에서 "한반도는 핵 무산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핵무기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민약, 전세계에 배치된 핵무기의 2만1천1천(1M)이 우리학교에 떨어진다면, 경북·서울·성경관대 등까지는 섬서 1천5백만도가 될 것이고, 2백70m/초속의강풍이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애국민족세력은 '반전반핵평화운동협의회'에서 모범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핵운동(예를들어 핵발전소 반대등)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할 때, 매년 새학기마다 학생들에게서 받는 첫번째 반응은 한국사라는 교과목에 대한 배타적 태도이다. 학생들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대학이전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한국사 교육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10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주입식·입송식 역사 교육이고, 국사라는 교과목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관제이데올로기의 주입과 지배집단의 자기합리화 행위이지 정당한 한국사 인식의 수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왕의 한국사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반영하여 이 책은 기존 한국사학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은 매우 취약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교과서를 통해 주로 얻고 있거나, 기

않을 때 그것은 과거로의 도피이거나 일시적인 마취효과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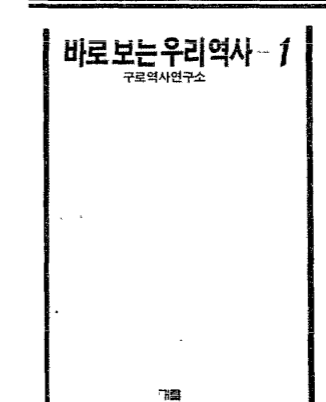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교과서가 이러한 일그러진 역사인식을 심어주는데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잠시만 여유를 내어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선 항목별 비중에서 전근대가 5분의4가량으로 대부분의 지면이 할애되어있다. 그 내용에서도 과거의 찬란했던 문화

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수립을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이 책은 그러한 역할을 뚫고 새로운 역사인식이 정당하게 대중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원시공통체사회로부터 1980년대의 민주민주운동까지를 다루고 있는 한국사 통사이다. 이 책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보다 근현대사가 전체 분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역사를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균형잡힌 역사인식체계를 수립하고자 애쓴 점이다. 즉, 우리의 삶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 우리의 주위에서 뚜렷한 역사를 형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이 책이 가진 두번째 특징은 역사발전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입장에서 서서 한국사 전 시기를 포괄하는 통일적인 인식체계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다. 즉, 사회경제사(민중생활사)와 민중운동사에 중점을 두어 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상의 특징과 함께 이 책은 서술에서 '쉽고 재미있게'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적인 역사를 '확실화된 과거 사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역사'로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바로보는 우리역사

(구로역사연구소)



우리결에 '살아 숨쉬는역사' 느낄수있어

것해야 유소년기에 읽은 위인전류에 의존하여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나 위인전이라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교육현장에서나 전문연구자들에게 의해서 여러모로 지적되어 온 터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 획득된 역사인식이 얼마나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웅대했던 우리 민족의 기상과 찬란한 문화전통을 통해 잃어버린 과거의 꿈을 찾고, 현재로 내려와서는 좌절과 고통의 아픔을 맛보며 패배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간직하고 있

진통이나 업적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한 개인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근현대는 분량도 소략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심히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우리들은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 자기만족감에 도취할수는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을 통해 현실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기는 힘들것이다.

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그간의 꾸준한 역량축적이 힘입은 바 크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다양한 학문교육의 경험, 역사교사들과의 모임을 통해 이를 보충하려는 세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계절적으로 이 책은 얇고 요령있게 쓰여 있어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책에는 한계와 부족점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식자평을 꾸준히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과 집필자들이 서로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을 심화시켜 나갈 때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계속 그 내용을 알차게 꾸어 나가기를 바란다.

정 용 옥 (서울대학교원·사학과석사과정)

제8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0주년 및 4·19 30주년 기념 '제8회 학생논문'을 제정, 여러분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30년전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의 함성으로 여울졌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19의 참뜻을 세기며 오늘에 이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광장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본교생에 한함(대학원생포함)
- ◇분량... 2백자원고지 50매가량
- ◇마감... 4월9일(월) 오후4시
- ◇발표... 4월18일자 본지지상(제1046호)
- ◇접수... 본사 총무부
- ◇상금... 당선자 1편(상장및 부상20만원) 가작 2편(상장및 부상15만원)
- ◇주제
 1. 4·19이후의 변혁운동을 통해 본 외세의 영향
 2. 초기불교의 해방사상
 3. 교육의 자주화를 위한 고찰
 4. 올바른 통일방안
 5. 현시기 대학언론의 위상과 역할

동대신문사

오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조약돌같은 행복이 널려있는 생활— 바로 이 생활속에 휴먼테크가 살아 있습니다. 생활속의 작은 행복에서 생각속의 미래행복까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인간행복입니다.

미군주둔45년... 남은건 상처뿐

임신6개월 여교사 폭행... 죽음까지 이르게 해 미군 범죄 20년에 1백여명이상 희생자 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미군에게 겁탈당하고도 재판권 밖 제대로 못받은 채 죽어간 수많은 한국의 여인들. 구천에서 떠도는 그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정한 자주국가를 이룩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물음에 대한 해명은 진실을 진실로써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편집자>

1947년 2월18일 서울 대법원법정에서 '미군의 조선부녀 농성사건'에 대한 미군정군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이래로 주한미군에 의한 강간, 살인, 폭행, 마약복용, 사기등의 범죄 행위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의무부가 밝힌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저질러진 미군범죄는 총3만9천4백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미군수는 무려 4만5천1백83명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평균 2천2백여명이, 45년여 약 10만여명의 주한미군이 범죄행위를 자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어 실로 충격적이다.

'치욕'의 역사는 범죄의 처리과정에서 '굴욕'의 역사로 신명히 나타난다.

그만큼 범죄가운데서 지난66년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정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 건수는 불과 0.7%(2백34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비율은 NATO 32%, 일본 32%, 필리핀 21%의 재판권행사와 비교할때 한국의 대미예속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광주항쟁등으로 미국의 대한개입이 본격적, 총체적으로 이뤄진 지난 80년에는 미군범죄 1천6백79건 가운데 한국정부가 1차판권을 주장한것은 단한건도 없었다.

한국정부는 "한국측이 1차판권을 갖는 범죄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적 판권을 포기한다"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완벽하게 또 충실하게 지켰던 것이다.

법무부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측 1차재판권행린 행사사건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한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유형중에서도 강간과 강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발효(67년2월)후 최초로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빌리프스(방화죄)는 법정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반성대신 한미우호관계를 틀박으며 관대

한 처분을 요구했다.

사실 미군정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은 '한미우호관계'라는 '면죄부'를 지니고 다녔다. 그것부터가 왜곡된 한미관계사의 보장이며 저질러진 일종의 절도였던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기전인 '67년 이전의 그후보다 강간사건이 빈발했다는 사실과 인연에 보도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사건까지 합한다면 45년여 주한미군에 의해 강간당한 한국여인은 1백여명이 훨씬 넘을 것이 확실하다.

한국여인들의 수만은 공식적으로 46년 3월 미군4명에 의해 육을 보편사부터 시작된다. <동아일보 46년 4.13>

그런데 미군들의 추행은 대부분이 가장 잔인한 방법인 집단유괴로 나타났다.

71년 10월4일 미유도탄부대 D중대소속 윌리G 라세트(21세) 일병등 미군8명은 영종포구 유원동 뒷산에서 약초를 캐던 이순도(31세) 여인을 발견해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8명 교대로 육을 보았다.

게다가 정신을 잃은 이여인의 돈을 5천원까지 훔쳐 달아났다. 이여인의 신고로 8명 모두 검거되었다.

집단유괴는 86년 팀스피리트훈련

중에도 자행됐다.

86년 3월5일 충북 제천군 봉양국민학교에서 근무하던 이교교사가 귀가하던 중 팀스피리트훈련을 한 다미비25사단 포병대대소속 미군병사 5~6명에 납치돼 온갖 농락을 당했다. 이때 이교교사는 임신6개월로 한생명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노동자신문, 서노련 86.4.23>

이사건에 대해 주한미대사관은 "사실부진"임을 애써 밝혔으나 평화신문(88.7.24)에 의해 확인된바 있다.

또, 지난 83년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훈련중이던 미군병사가 한국인소녀를 농욕에 버리기도 했다. <평화신문 88.7.24>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어나는 강간, 살인, 절도등의 범죄는 미헌병이나 한국경찰이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어야 할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주권을 침해하고 여러범죄를 일으키는 그들의 말로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주한미군이 진정한 자신의 나라에서나 그러한 일을 할수 있게 조용히 집으로 돌려 보내는 길뿐이다. <유권준 記者>

상황진단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제해부

공격 전제한 핵전쟁 연습

북한자극... 긴장완화 어렵게 해

76년에 처음 시작된 팀스피리트훈련은 유사시에 미 예비병력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실어날르는 것이 예초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78년 부터는 훈련의 양상이 변해 병력이 크게 늘어났다. '악마의 병기'라 불리는 중성자폭탄용 랜스미사일(사정거리 1백20km)이 군사분계선에 배치되어 실전사격훈련을 받았다.

그러다가 80년으로 접어들면서 변화하는 미국의 전략, 즉 적보다 앞서서 핵공격을 감행하고 유럽에서 터지던 한반도에서 맞불을 놓는 '핵선제공격 및 동시다발 보복전력'으로 팀스피리트훈련도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예초에 훈련기간도 10일정도였으나 80년이후에는 2

~3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참가병력도 20만명이 넘는 세계최대규모의 훈련이 되고 있다.

그리고, F16, F52, F111 등의 고성능 폭격기가 동원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폭기이다.

85년부터는 핵배낭 특수부대를 북한후방지역에 침투시켜 핵폭탄을 설치해놓고 원격제어장치로 폭발시키는 훈련도 해오고 있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에는 핵무기가 1천여발, 19개의 핵기지가 있다. 중성자탄인 W-79, 8인치 포탄이나 크루즈미사일의 배치도 고려되고 있다.

이미 배치된 핵무기는 핵지리, 핵포탄, 미사일 핵탄두, 핵폭탄등이다.

핵폭탄은 군산과 오산기지에 있는 미공군 랜덤3개비행대대와, 오산, 군산, 광주기지가 핵폭탄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ABC(핵·생물·화학병기) 훈련시설도 동두천의 제2보병사단기지에서 만들어 놓았다.

실로 미국은 한반도의 하늘과 땅 모든곳에서 민족의 씨를 말리는 핵전쟁의 포부를 양껏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팀스피리트훈련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80년대들어 선제공격 동시다발보복전력으로 전략을 바꾼후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을 우위에 놓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PACEX(태평양군사연습)와

RIMPAC(환태평양군사훈련) 등을 신선했다. 미국·일본·한국·필리핀·호주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통해 동북아시아 군사체계를 바꾸어 놓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즉, 한국의 군구조개편→한미연합사 2원화→작전권 일부이양→안정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체 건설로 이어지는 관계속에 팀스피리트훈련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이 적의 공격에 대응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격퇴하는데 비해 팀스피리트는 방어훈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해병대가 투입되는 포항일대의 상륙작전은 그 일대의 지형이 북한의 원산지역과 흡사해 북한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볼때 팀스피리트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라는 말은 더이상 실용력을 갖기가 힘들다.

오히려 어김없이 여러 핵공격연습과 상륙훈련을 진행한 남한과 미국.

진정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그리고 군축은 요원한가.

끊임없이 전격과 핵에 반대해 나가는 민족적 자긍심과 주체성이 결실치 않으면서 시기가 지나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회부>

기획점검

미국의 내정간섭 통로

미국, 대학에도 손길 뻗쳐

전 주한미대사가 예언했던 '원미보수대연합' 10-26 박정희 암살의혹'등 우리에게 미국과 관련한 여러 실화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실화는 미국이 '에언'을 넘어 '운명'을 좌지우지하고있지 않나라는 의문까지 제기 한다.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통로는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 주한미대사관의 활동영역, CIA한국지부의 활동영역, 정치·군사·문화등 그 영역의 광대함은 실로 놀랍다. 미국의 대한내정간섭 통로를 올바로 바라볼수 있도록 하자. <편집자>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앞에 우리는 무력했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는 거대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어느덧 우방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의 물결에 편승하는 척도 해보인다.

이글에서는 서면호사건이레로 끊이지 않는 미국의 침략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어떤 내정간섭에나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흔히 미국을 독점자본주의 국가라고 한다. 즉 미국정부와 군부의 배후에는 보수주의의 편견을 주창하는 거대한 독점자본가 집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권력·결합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권·결합으로 '지도'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한 지배정책은 여기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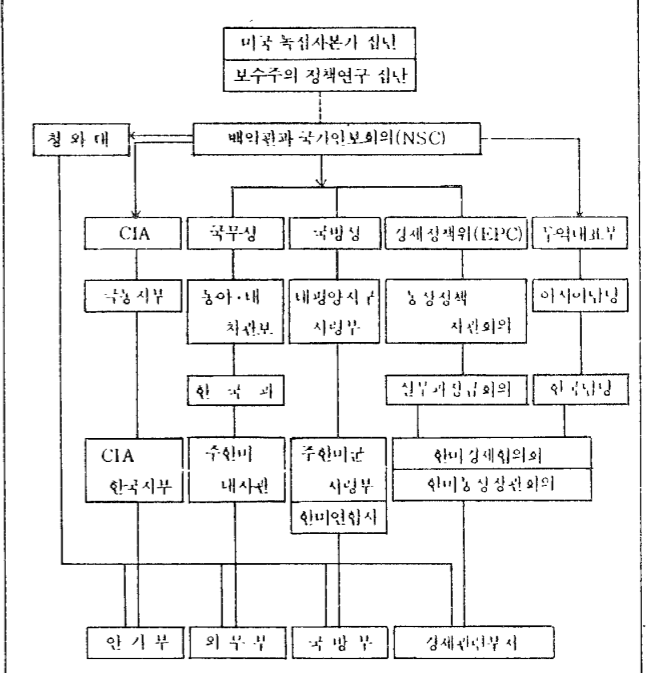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들어오고 있는 '해리트리제'란 '전략문제연구소' '국제관계위원회' 등이 바로 미국 독점자본의 기탁금으로 유지되는 연구소이며 여기서 미국의 이해-정확히는 미국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켜 제3세계를 분할지배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대한지배정책을 입안·관철시키는 부분별 통로를 알아보자.

백악관의 대령이 가진 힘은 엄청난데 크나. 지구를 거진할수 있는 핵폭탄 단추를 누를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다.

만약 한국의 경우에도 83년 그레

(표 1) 미국의 대한 내정간섭 구조



나와 같은 경우가 벌어질 때에는 주한미군4만명을 언제라도 개입시킬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지배정책은 백악관과 CIA국장, 합참의장등이 참가하는 NSC를 통해 입안된다. 이런 과정은 87년 6월 행정당시 잘 드러나는 데 실제로 NSC산하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시거는 4차례나 한국을 찾아가 시거구상을 6:29로 현실화시켰으며 87년 11월에는 아연단일화가 결렬되자 '최근의 정치상황변화를 기쁘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해 '분열-지배'전략이 관철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한지배정책수행에 있어 열광적인 바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CIA지부이다.

미대사관7층에 있는 CIA한국지부사실은 겉으로는 지역연구소라고 위장하고 있다. 1960년초 CIA한국지부장은 회고록에서 "서울의 각대학교와 주요 정부부처에 정

통한 정치관측통을 다수 확보하여 값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손길이 얼마나 구역구적 미치고 있는지 알수 있다.

그리고 경제부문에서도 경제정책위(EPC)를 통해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여러가지 '수법'을 전달한다. 이제 미국을 똑바로 볼때가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5-16에서 그리고 유신을 거쳐 5-17, 광주항쟁, 87년 대통령선거에까지 미국이 직·간접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실권적으로서는 지배해온것이 사실이었다.

"89년봄 한국에서 좌우충동이 예상되는데 좌익은 결집력이 강해 공동전선을 펴게 될것"이라며 "보수세력도 단결해야 될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제임스 리틀 전 주한미대사.

그 후의 그그레고와 가시화된 천미파쇼야합은 미국의 대한지배의 명백한 증거라 하겠다. <사회부>

시사상식

'무노동 무임금'이란

배고픈자에 대한 배부른자의 이윤 원칙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단행행동에 대하여 각종 탄압을 가하는 자본가들은 임금은 노동량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상당히 설득력있는 논리를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해두고 있다. 또한 사용자측은 노동자의 행위위태에 대한 적정배채역시 노동쟁의조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임금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는 단순히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그만한 고유한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임금은 그 노동력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비용으로 기준을 잡아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행위, 질병, 출산, 휴가등에 대하여도 다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사용자측은 무노동무임금이라

는 원칙을 내세워 쟁의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파업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근본에는 자본가들의 착취를 확보하여 노동자들이 노예의 수준으로까지 끌어 내리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의미대로 무노동무임금이라면 오히려 노동자보다는 사용자가 더 많은 손해를 보게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데서 이 원칙의 허구성은 드러난다. <권력기(사4면)>

스마트한 남자는 SMART IVY

무려 100여가지의 옷은 DRESSY

모던스틸이 갖는 American Style

전국지점안내

- 서울 774-6666/7
- 광화문 736-9951
- 중도 734-2360
- 영등포 960-8883
- 노원 834-7227
- 용산 977-1044
- 신계 본점 773-6750
- 신계계점 675-6871
- 신계계점 904-8541
- 마포 본점 774-8487
- 마포계점 865-8495
- 마포계점 863-1837
- 마포계점 863-1835
- 신계 본점 684-3597
- 영등포 756-9848
- 인천부 3-2656
- 인천 8-8538
- 고양 73-8802
- 고양 84-4572
- 부산 522-2567
- 인천계점 763-9211
- 인천계점 612-1105
- 수원 43-3113
- 동부 본점 2-2233
- 대전계점 256-1801
- 대전계점 255-8535
- 전주 85-3745
- 대구계점 421-8248
- 대구계점 254-9929
- 부산 본점 45-5501/2
- 광명 본점 45-0509
- 광명 본점 94-5505
- 광명 본점 42-1231
- 수선점 774-6666/7

레스모어

신세대를 위한 2만원대 패션구두

영리미대를 위한 캐주얼구두

Collegian

유리미대를 위한 캐주얼구두

TOUR FASHION

유리미대를 위한 캐주얼구두

CONTINENTAL

₩23,000에서 ₩29,000까지 실속으로 선택하세요

LESMORE

전국대리점개설문의 Tel (02) 755-5601~5

뜨거운 가슴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교조 1세대가 교육현장에 보내는 편지

—선생님 저는 용기가 부족한 가봐요. 이런 이야기를 쓸 땐 꼭 한 두 잔 술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들의 참교육이던 때가 자식들 땅콩머리 고3원사들때 어머니의 울음 섞인 주님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S대, Y대하며 장래가 촉망되던 그들이 신세조였다던 친구들의 비웃음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저는 참으로 신세조져버린 농민지도 모릅니다. 민중, 민주, 인간화 교육을 하겠다고 발뚎고 나서다가 밭을 옮긴 선생님처럼.
그러나, 선생님,
이 시대에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명동성당 단식자 명명숙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흘러내린 나의 눈물이, 문교부에서 성적지라

들의 목소리가 참교육을 열망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학교를 울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 저는 또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참교육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지메이태올로기의 강화수단으로서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과 저는 일제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도부 선생

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선생님들, 우리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가슴속에 살아오던 신세조진 농민의 칼날을 그 농민의 가슴위에 꼭 수놓기 위해 말입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기 선생님의 제자, 후배, 아니 동지가 뒤따릅니다. 참새상, 모든 자유와 평등과 해방을 향해.
수업시간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다가 안타깝게 입을 다무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이제서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제야 갑니다. 마지막 교단에서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무엇인가 이제야 갑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바로 의식의 작업이다. 옳은것을 옳다고 이야기 할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 질 것이다”

대학을 꿈꾸는 고3 후배들에게 까마득하게 여겼던 고3의 생활도 어느덧 녀덜 전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돌이켜보면 벌일이 아니었다는데도 고민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건파하며 오직 ‘대학’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정신없이 생활했다.
다만 이러한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의 의지는 ‘단지 1년간 고생하면...’이라는 피상적 생각에, 또 ‘대학에 꼭 가기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에 얽매어 근근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나의 내일은 생각하기조차 사치스러운 시간으로 치우치며 인생에 있어서의 고민보다 하나의 지식을 더 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3의 생활모습이 ‘대학입시’라는 주제를 매놓고 생각하더라도 인생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남겨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단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대학에 와서 느낀 실망을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쓴다.
우선 한달을 지낸 대학의 모습은 고3때 생각했던 모습들과는 거리가 멀다. ‘자유와 진리의 표상, 상아탑’... 이러한 대명사는 단지 이론적이며 대학의 실상을 흐리게 하는 말이다.

대학의 실체는 잘 포장된 책의 사파와 같아서 멀리서 보거나 만지기에는 좋다고 느껴지지만 한입 먹어만 보아도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그런데도 아직 포기만 하려는 대학생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진리와 정의를 탐구하기 전에 정부의 탄압에 쓰러져야 하며 자유로운 학원분위기를 만끽하기 전에 수많은 최후통첩을 마셔야 한다.
어느 때는 도서관에서의 공부보다 ‘민주’를 외쳐야 하고 모순된 현정권을 부정도 해야 한다.

한달남짓 새학기가 지났다. 지난 한달동안의 생활을 통해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3의 힘든 생활에서 ‘대학입시’를 메고라도 능 능등등할 수 있는 생활의 기본이 되어 대학입시에 앞서 대학인으로 서의 요건이 될 것이다. 자기가 보수적일지라도 단정하지

후배에게

자신 변화할 신념지닌 후배되길

동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라는 것이다.
불의와 싸우고 억압을 타파하려는 신념, 인젠가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역사의 신념, 이러한 자기 신념을 두는 것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말차,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후배들이 수동적이거나 보수적인 것을 용납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민
(문과대 국문학과)

선생님께

동지되어 선생님 뒤 따르고 싶어

고 우기던 선생님이 담장자에 끌려 들어가서면 뒷모습이 결코 신세조진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뜨거운 여름 저는 사발로 교문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 선생님을 둘러싸던 우리

님에게 죽도록 터지면서 웃었습니다. 하, 하, 우리가 이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신세조진에 아니었어고 생각합니다.
후-,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후 저는 사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 느낀 그 참교육 승리의 기쁨

1990년 4월 2일 사랑하고 부정하고 끝내 승리 할 제자들입니다.

최동현
(사범대·국교과)

"현실에 입각한 민속혼례 가꿔낼 터"

—전통 혼례식 재현하는 우리 옛것을 찾아서

“신랑은 신부를 죽을때까지 사랑하겠노?” “예!” “같이 카메라 촬영이 있겠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약지처럼 모여있던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후시나 사진에 얼굴이 인나오면 신랑·신부 측에 무슨 큰 결례나 되는 것처럼, 잠시후 예식장 귀퉁이에 붙어있는 폐백실로 달려가는 신랑·신부의

위해 우리의 옛 혼례식의 전통을 재현하는 곳이 있다. 이름하여 ‘우리옛것’ “사것에 양복입은 모습,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생활문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것과 서양것의 어설픈 접목으로 인해 뿌리내리지 못한 문화가 가지런의 혼란을 가져 오게하고 우리것에 대한 자부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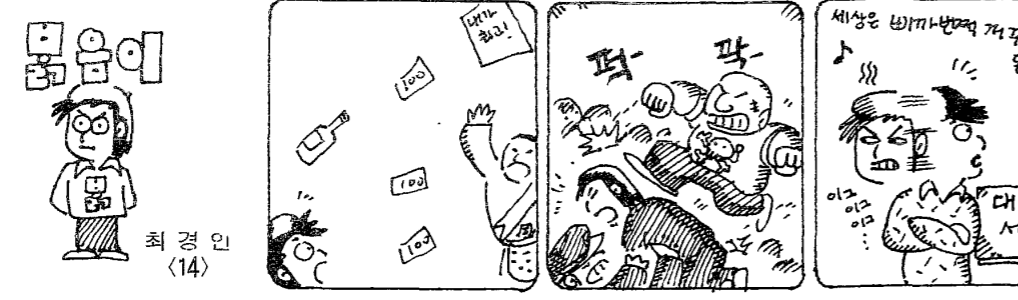
민속혼례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라며 설명취지를 밝혔다. 요즘 예식장에서 행해지는 서양 혼례식은 사실 조선말기에 전래된 것이란다. 당시 부유한 지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검은 양복을 흰 민사포가 등장하는 서양 혼례식을 선호하였다. 또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우

까다롭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되고 있어

모습이 보이더니 어느새 사모관대 와 원삼복두리를 번갈아 갈아입고 고신 폐백을 시작한다. 어느 예식장을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혼례식의 전형이다. 일생에 단 한번 뿐인 혼례식이 이렇듯 10분, 20분사이에 눈감작할듯이 치뤄지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

지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례식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인륜지대사라하여 참으로 소중히 치루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랑신부의 짧은 연기로 이뤄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라며 우리옛 것 대표자 강지아씨는 근래의 혼례 풍속을 비판한후 “우리옛것은 요즘 혼례식에 맞게끔 주제적인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출하고자하는 뜻에서

리의 혼례식은 지식인은 물론 민중에게 조차 외면되어져 왔다. 단순한것을 추구하는 서양의 편의주의가 일으킨 병폐였던 것이다. “서양혼례식은 유복민들의 습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거저 지를 자주 이용하는 그들에게 혼례식은 간단하게 치뤄져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문란한 성관념으로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남편이 많아



최경민 (14)

어디까지가 여자 의무인가

—MBC 주말연속극 배반의 장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니 요즘은 1년이면 모든것이 변하고도 남는 세상이라는데... 한주일이긴 피로를 풀고 주말 저녁 TV를 시청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끔 하는 드라마가 있다.

MBC 주말연속극 ‘배반의 장미’. 7년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남편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한 여성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남편이 다시 살아나고 인연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갈등속에서 헤매고 있다.

남편의 아내로, 한여자의 남편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축복일 것이다. 만났던 해어

로 틀림없는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아내의 결단은 조금은 메를론 행동으로 볼 수

지자 혼례식상에서 신랑은 신부를 죽을때까지 사랑하겠노라는 식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짐 받는 절차가 있는 등 우리의 도덕관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지아씨는 서양혼례식과 우리풍속과의 차이들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옛것에서는 지금까지 5쌍의 부부를 탄생시켰다. 혼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민속혼례를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의 분위기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다.

이름테면 혼례청용림(알뜰이 마당)이라하여 혼례식직전에 풍물등을 오로 잔치분위기를 북돋는다든지, 민음의 상징인 기러기를 놓고 소례를 올리고 혼인을 하늘에 일리는 고원문을 도입하는 등 옛것과 현대 것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다.

“옛것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것의 장점을 살려, 그것의 토대위에 더욱 새롭고 발전적인 문화를 가꿔내야 하겠지요”라며 강지아씨는 혼례식을 치루는데 있어 전체를 두었다.

근래에 들어 일반문화인들이 활발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운동들이 실생활과 유리된 채 진행된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머물림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생활문화운동은 바로 우리의 주위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 (유기용 기자)

도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가상의 드라마라고 하지만 7년동안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불쑥 그것도 아내가 떠난 때를 맞춰 기적적으로 살아남

유교적 사고방식의 일방적 강요에 그쳐

지는 일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일은 7년을 기다렸다. 그러다 마침내는 자신의 인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남편을 떠났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자, 비록 식물인간일지라도 살아있는 남편을 둔 아내의 ‘배반’이라 불리워지는 행위가 과연 문제일까? ‘하늘같은 남편’ ‘일부중사’ 뭐 별

의로 인해 남편을 떠난 아내는 괴로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술 더떠서 ‘고모’라는 사람의 동생의 회복에 도와달라며 ‘인정’과 ‘부담’을 앞세운 거절할 수 없는 강요를 해오고 있다.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아내의 행동에 대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판단을 강요한다고만 볼 수도 없다. 그저 인생의 특별한 측면을 보여 주는 단순한 드라마일 수 있고 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닐까? 이제 TV매체는 시대나 주위상황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는 객관성을 담보하여,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줌은 물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의 생각을 연연중이라도 가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배반의...’는 아내에게 그 누구라도 둘을 단치게 하는 드라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유준기자)

AMERICA

▲41년 전 2시 5분 1948년 4월 3일 새벽2시 한 발의 총성은 순식간에 제주도를 흔들고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한라산 봉우리 봉우리가 다 붉은 봉화가 울려지고 이상한 공기가 전 도에 맴돌았다. “미국은 죽자 살자” “당국만족은 거 걸사발대” “UN한국위원단은 죽자 살자” “이승만 미국도 당을 타도하자”를 슬로진으로 제주도민들은 무장을 하고 한라산을 내려와 전일 친미미국 도당이 포아리를 들고 있는 공공관서를 공격, 제압했다. 4·3부쟁기의 시작은 이러했다. ▲4·3봉기후 1년동안 미국과 친일·친미 매국도당의 꼭두각시들은 방화·강간·약

탈을 자행해왔다. 일제가 36년동안 지질했던 온갖 만행에 버금갈 만큼 아니 오히려 더욱 잔혹하게... 봉기가 실패하는 46년 4월 도내 5만7천 가옥중 2만호가 3천실되고 3만2천두의 폐지와 7천두의 말이 죽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제주도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은 시들어 버린 7만 도민이었다. ▲4·3항쟁을 일으킨 41주년이 지난 지금 세상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4·3항쟁의 역사는 지워진 것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은 것이며, 잊혀진 것이 아니라 악의적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大卒新人社員募集

2000年代 高度技術産業社會의 主役 現代와 함께 遠大한 抱负를 實現할
참신하고 進取的인 人材를 널리 募集합니다.

1. 募集部門, 人員 및 資格		
募集部門	人員	應試資格
理工系 機械工學·電氣工學·建築工學 土木工學·産業工學·金屬工學 化學工學·電子工學·電算學 數學·物理學	800名	· 正規 4年制大學 募集該當學科 및 關聯學科 專攻 또는 副專攻者로 90年 8月 學士 및 碩士學位 取得豫定者 · 1962年 1月 1日以後 出生者로서 兵役 畢 또는 免除者(但, 碩士는 1960年 1月 1日以後 出生者) · 海外旅行에 缺格事由가 없는者
人文社會系 經營學·經濟學·貿易學·法學 行政學·英文學(但, 語文系, 師範系 및 其他 人文社會系 專攻者는 上記 專攻中 擇一 志願可)	500名	

2. 銜衡方法
가) 1次: 書類銜衡
나) 2次: 面接 및 身體檢査(1次 合格者에 限함)

3. 提出書類
가) 入社志願書(當그를 所定樣式) 2通
나) 大學 全學年 成績證明書(大學院 出身者는 大學院 成績證明書 包含) 1通
4. 志願書 交付 및 接受
가) 期間: 90年 4月 6日(金)~4月 18日(水) 每日 午前 9時~午後 5時(公休日도 接受함)
나) 場所: 現代人力管理委員會(郵便番號: 110-793)
서울市 鍾路區 桂洞 140-2 現代빌딩 別館(비밀열) 地下 3層
電話) 746-3232, 3233, 3234
5. 其他
가) 郵便接受는 登記郵便으로 마감일 午後 5時限 到着하여야 함
나) 國家 報勳對象者는 關係法에 依據 優待함
다) 現役 軍 服務中인 者는 90年 7月末 以前 轉役者에 限하여 志願可能함
라) 其他 자세한 事項은 接受處에 問議바람.
- 1990年 4月

現代人力管理委員會